"韓日, 의견 나누고 자비롭게 대화하라"

조계종 교육아사리회, '한일 관계' 주제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첨예한 한국과 일본 양국 갈등에 대해 조계종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불교적 해법을 내놨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과 교육아사리회(회장 금강)는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도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6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교육아사리회의 첫 공식 학술행사였던 이날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심포지엄에서는 '승가교육의 방향과 교육아사리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2부 학술대회에서는 '발전적 한일관계에 대해 불교적 제언'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됐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진행형인 한일 갈등에 대한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불교적 해법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승가 갈등의 대표 사례인 코삼비 사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여섯 가지 화합 방법을 갈등의 해법으로 제안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6가지 화합 방법으로 △같은 계율로 함께 지켜라 △의견을 함께 나눠라 △공양물을 똑같이 수용하라 △한 장소에 같이 살아라 △항상 자비롭게 말해라 △남의 뜻을 존중하라 등을 제시했다. 이중 "의견을 나누고 항상 자비롭게 말하며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한일 양국이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정운 스님의 주장이다.

정운 스님은 "상대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며 "종교인들이 타종교를 자신의 종교처럼 존중하듯 한일 양국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존중을 위해서는 상대 국가에 대한 '공감능력' 배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운 스님은 "매년 8월 15일에 대한 한중일 삼국의 감정선이 다르다"면서 "일본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돼 많은 일반국민들이 희생됐다. 평범한 일본 국민들의 상흔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과 교육아사리회는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도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단체 창립 첫 학술행사 개최
부처님 설한 화합 방법 통해
첨예한 한일 갈등 해법 제시

기초 교리 · 수행체계 확립 등
승가교육 발전 방안 제언도
진우 스님 "제언들에 공감"

'애증의 한일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한일 갈등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진단했다. 특히 역사를 교육함에 있어 '증오의 교육'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역사교육학적 논점 중에는 '증오를 가르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것이 있다. 역사는 객관적인 것 같지만, 언제나 특정한 주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극단적 파국은 안될 일이다.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증오의 판단에 입각한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포지엄에서는 교육아사리 역할에 대한 제언들이 이뤄졌다. 교육아사리회 부회장 현견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에는 수행 및 교리체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교육아사리가 이 같은 체계와 매뉴얼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문불전 · 응용불교 · 선불교 등 7개 분야로 분류된 교육아사리 전공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교육원에 제안했다.

현견 스님은 "각 분야의 교육아사리 스님들에게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장을 종단과 교육원에서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교육아사리 스님들 자체적으로도 힘을 모아 하나의 사업을 시작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원에서 발행한 백서를 통해 승가교육을 회고한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교육아사리회 부회장)은 "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종단의 사상적 위상과 현안 문제에 대해 불교적 대안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종단의 싱크탱크 교육아사리 제도를 역점 사업으로 생각했다. 이는 불교 교학자 DB관리를 실행해온 저간의 궤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아사리 스님들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기초 교리 수행 체계 확립과 승가교육 내실화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기초 교리와 수행 체계에 없다는 지적에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기초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면서 "기초 교리 체계 확립은 승가교육 내실화와 연결된다. 이 같은 승가교육 불사에 교육아사리 스님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가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교육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승가교육 내실화는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 같은 목표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각계 스님과 재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고 말했다.

초심자 신행 안내 체계화 모색한다

조계종 포교원 10월 30일 지역신행 전문가 좌담회 개최

사찰을 찾은 일반시민들과 신도들이 신행활동을 함에 있어 종단 차원의 안내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0월 30일 전법회관에서 '지역별 신행전문가 좌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포교원은 신행혁신을 주제로 종단 차원의 신행문화 정리에 앞장서고 있다.

포교원은 11월 21일 부산지역 신행전문가 회의와 11월 26일 광주지역 신행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신행문화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번 신행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신행모범사례와 신도요구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찰측에서는 서울 수국사 호산 스님, 안동 대원사 등안 스님, 인천불교회관 일지 스님, 양양 낙산사 포교국장 수미 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신행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통도사 창원포교당 주지 무성 스님과 권순찬 중앙신도회 부회장, 전호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수석부단장 등이 참여해 토론했다.

특히 수국사의 경우 나눔음악회와 스포츠 포교의 성과, 대원사는 달빛걷기 명상과 나홀로 암자순례, 인천불교회관은 기본신도교육과 어린이 청소년 법회 활성화, 낙산사는 생애주기별 포교 및 불자마을 조성, 농어촌 포교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결국 스님과 신도간의 유대감과 신뢰가 기반이 되고, 사람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인재불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개인에 대한 포교가 아닌 마을 공동체, 전법보다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포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신도들의 신행을 이끄는 '신행 안내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인 스님용 '신행 지침서'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신행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초의선사 다향, 가을 고궁서 만끽

동아시아차문화硏, 10월 26일 고궁다담 개최

단풍이 한창인 10월 26일, 아름다운 조경과 건축으로 유명한 창덕궁에서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다회가 열렸다.

'고궁다담(古宮茶談)' 고궁에서 다담을 나눈다는 이번 전통다회는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가 주관했다. 다회 자리가 열린 곳은 창경궁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통명전이었다.

10월 19일 창덕궁 낙선재에서 고려전통차를 시연한 1차 고궁다담에 이어 열린 이번 고궁다담서는 조선 후기의 전통차가 선보였다. 이날 제공된 차는 녹차로 19세기 초의 스님 이후 선비들이 수양의 의미로 즐겨 마시던 차였다.

행사를 주관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조선 초의선사의 다맥을 이은 응송 스님으로부터 이어진 다법"이라며 "우리가 흔히 차를 우려낼 때 70도의 물로 우려내지만 여러 기록을 보면 뜨거운 물에서 우려마시는 탕법이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늘 차는 사찰에서 전해지는 탕법"이라고 밝혔다


고궁다담에 참여한 대중들이 조선 후기 녹차를 음미하고 있다.

박 소장은 이어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차를 만든 이들의 정성과 차를 마시는 이들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 정신문화의 정수인 차문화가 역시 그만한 격조가 있는 곳에서 대중에 소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다"고 다회 의미를 덧붙였다.

이날 다회에는 영화배우 류승룡 씨를 비롯해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등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대거 찾았다.

류승룡 씨는 "고려단체를 비롯해 전통 차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동안 무지했구나 느꼈다. 일상사 다반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차를 많이 마셨는데, 현재 우리들은 커피문화로 차문화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단아한 우리 전통의 차문화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고려 현화사 석등 다시 대중 곁으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0월 30일 새롭게 보존처리를 마친 개성 현화사 석등을 재설치하고, 이를 기념하는 낙성식을 개최했다. 점등식서는 열이 나지 않는 LED전등으로 임시로 불이 밝혀졌다.

석등이 있던 현화사는 현종(玄宗, 재위 1009~1031년)이 불우하게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사찰로, 왕실의 행차와 법회가 열리던 고려의 대찰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일본인 골동상인 곤도 사고로에게 이 석등을 구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박물관 이전과 함께 자리를 옮겼으며, 2005년 10월 28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현재의 자리에 세워졌다. 전체적인 상태 보강과 각 부재의 강화처리를 위해 2017년 9월에 해체하여 이후 3D스캔 촬영 및 보존처리를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 취임법회

일 시
불기 2563(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장 소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룩한 진리의 바다를 이룹니다."

한국불교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실천하는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출범합니다.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대신 쌀로 보시하시면 스님 요양시설, 미혼모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쌀보시 안내 : 쌀 20kg 1구좌 10만원
● 쌀보시 계좌 : 국민은행 208601-04-073935(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 문의 : 02)3411-8103~4, 010-4111-9031
● 사부대중께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취임식 준비위원회